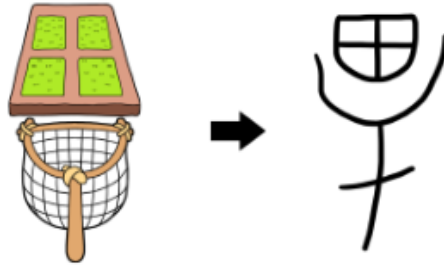


3(2)
-
461

회의문자 ①



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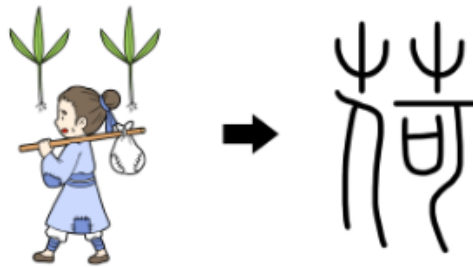
마칠 필

畢자는 '마치다'나 '끝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畢자는 田(밭 전)자와 畢(양 을 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畢자는 모양자로 쓰인 것일 뿐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畢자의 갑골문을 보면 田자 아래로 뜰채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이 왜 '끝내다'를 뜻하는 것일까? 고대 중국의 농경문화를 보면 畢자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지금도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잉어나 오리를 논에 함께 풀어 놓는다. 잉어와 오리가 해충들을 제거해 주면서도 이들의 배설물이 벼의 훌륭한 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가을이 되어 벼를 수확할 때는 잉어도 함께 잡아 한해의 농사일을 마무리 짓는다. 그러니까 畢자는 풀어놓은 물고기마저 잡아야 농사일이 마무리된다는 의미에서 '마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462

형성문자 ①



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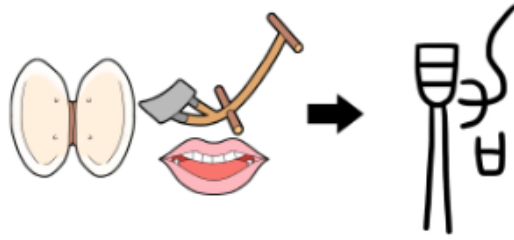
멜 하(·)

荷자는 '메다'나 '짐어지다', '부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荷자는 𠂔(폴 초)자와 何(어찌 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何자는 어깨에 짐을 멘 사람을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何자를 보면 보따리를 어깨에 짊어 메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본래 '메다'라는 뜻은 何자가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어찌하여'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여기에 𠂔자를 더한 荷자가 '메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니 荷자에 쓰인 𠂔자는 풀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소전	해서

3(2)
-
463

회의문자①



賀

하례할
하:

賀자는 '하례하다'나 '보태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賀자는 加(더할 가)자와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加자는 농기구와 입을 그린 것으로 '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賀자는 본래 경사(慶事)가 있는 집에 선물로 축하해준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貝자와 加자를 결합해 축하를 받는 사람에게 재물(貝)을 더해준다(加)는 뜻의 賀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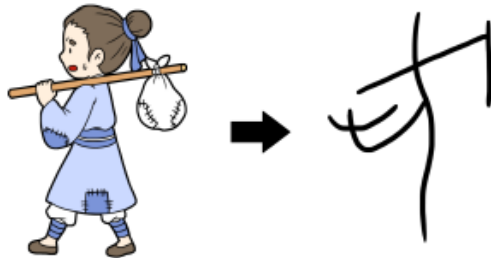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464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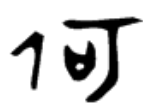
何

어찌 하

何자는 '어찌'나 '어떠한'과 같은 뜻을 가진 글자이다. 何자는 人(사람 인)자와 可(옳을 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何자의 갑골문을 보면 어깨에 보따리를 멘 사람이 何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보따리를 메고 어딘가로 떠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何자의 본래 의미는 '메다'였다. 이렇게 짐을 싸 들고 길을 나서게 된 데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何자는 후에 '어찌'나 '어느'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되묻던 의미가 확대된 것이다. 지금은 여기에 艹(풀 초)자가 더해진 荷(멜하)자가 '메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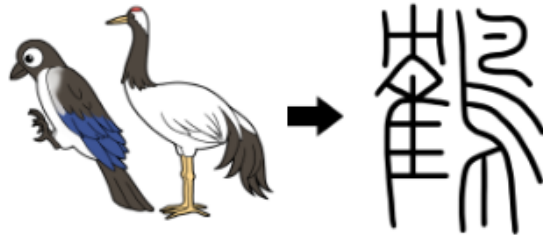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465

회의문자①



鶴

학 학

鶴자는 '학' 또는 '두루미'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두루미는 순수 우리말이고 한자어로는 '학'이라 한다. 고대부터 학은 신선이 타고 다니던 새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선비를 상징했다. 길게 뻗은 흰 날개의 자태가 우아하고도 고상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 때 선비들이 즐겨 입던 옷도 학의 자태를 흉내 낸 것이니 학은 우리 선조들의 일상과도 친숙했었다. 고대 중국에서도 학은 고상함의 상징이었다. '고상하다'라는 뜻을 가진 雉(고상할 학)자와 鳥(새 조)자를 결합해 만든 글자가 바로 鶴자이기 때문이다.

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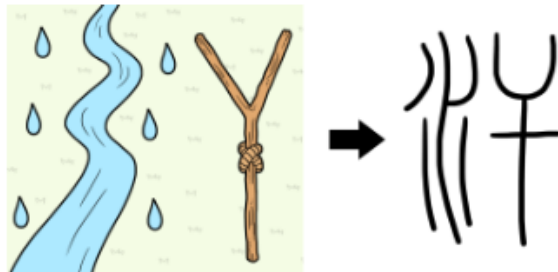
소전

鶴

해서

3(2)
-
466

회의문자①



汗

땀 한(·)

汗자는 '땀'이나 '(땀이)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汗자는 水(물 수)자와 干(방패 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땀은 몸에서 나오는 '액체'이기 때문에 水자가 의미요소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막다'라는 뜻을 가진 干자가 땀과는 무슨 관계인 것일까? 사실 干자는 화살을 막던 방패를 그린 것이 아니다. 干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출입구에 세워두었던 '방어막'을 그린 것이다. 나무를 엮어 만든 방패로는 햇빛을 차단할 수가 없다. 汗자는 햇빛을 차단하지 못해 땀이 난다는 뜻이다.

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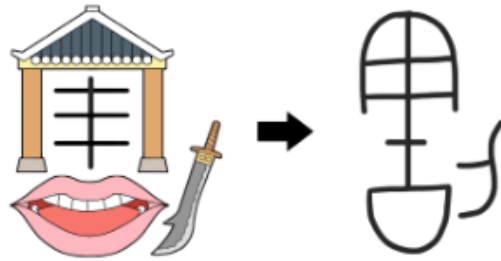
소전

汗

해서

3(2)
-
467

회의문자 ①



割

벨 할

割자는 '베다'나 '자르다', '끊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割자는 害(해칠 해)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害자는 집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해하다'나 '해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치다'라는 뜻을 가진 害자에 刀자가 결합한 割자는 칼로 누군가를 베어 해롭게 한다는 뜻이다.

금문

금문

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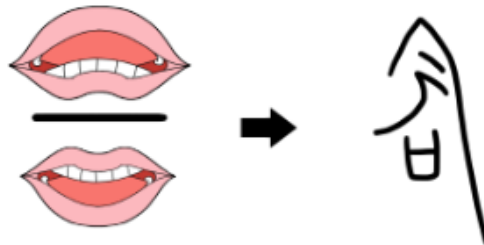
소전

해서

해서

3(2)
-
468

회의문자 ①



含

머금을
함

含자는 '머금다'나 '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含자는 今(이제 금)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今자는 입안에 무언가를 머금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머금다'였다. 그러나 후에 今자가 '이제'나 '지금'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여기에 口자를 더한 含자가 '머금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의미를 뺏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다른 글자를 더해 뜻을 살리는 경우가 많다.

금문

금문

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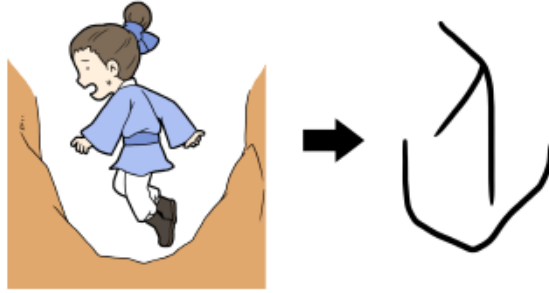
소전

해서

해서

3(2)
-
469

회의문자①



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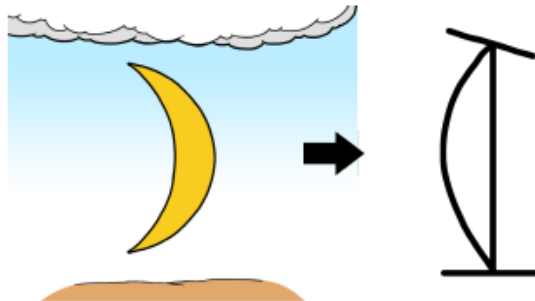
빠질 함:

陷자는 '빠지다'나 '빠트리다', '모함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陷자는 阜(β : 언덕 부)자와 陷(함정 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陷자는 사람이 함정에 빠진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본래 '함정'이라는 뜻은 陷자가 먼저 쓰였었다. 갑골문에 나온 陷자를 보면 사람이나 人 사슴이 陷 함정에 빠져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소전에서는 여기에 阜자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陷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소전	해서

3(2)
-
470

회의문자①



恒

항상 항

恒자는 '항상'이나 '늘'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恒자는 心(마음 심)자와 恒(걸칠 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恒자의 갑골문을 보면 단순히 月(달 월)자 위아래로 획이 亘 그어져 있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걸쳐있는 달이 차오르다가 줄어드는 것을 반복한다는 뜻이다. 달은 주기적으로 모습을 바꾸지만 시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달은 정기적으로 모습을 바꾼다 하여 '항상'이나 '늘'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心자가 더해지면서 '늘 변치 않는 마음'을 뜻하게 되었는데, 해서에서부터는 心자와 恒자가 결합한 恒자가 '항상'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